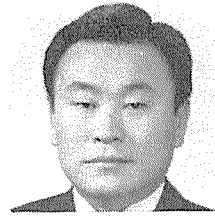


# 공동체 意識으로 電子工業 育成하자



南宮 哲  
三星電子(株)企調常務

国内外의 急激한 변화와 어려웠던 經濟 環境을 뒤로 하고 이제 希望찬 내일을 約束하는 갖가지 새로운 徵候속에서 壬戌年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全世界에 걸친 不況의 여파가 걸리지 않은 채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試鍊과 教訓을 안겨 준 한 해 였습니다. 컬러TV의 放映으로 好轉의 機會를 잡았던 電子業界는 높고도 험한 不況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었으며, 치열한 경쟁속에서 減量經營의 必要性에 대한 값비싼 教訓을 터득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逆境 속에서도 우리 電子人의 슬기와 의지는 꺾일 줄 몰랐으며, 그 所産으로써 갖가지 節約型 電子製品을 開發, 國民經濟에 이바지 하였고, COMPUTER, 半導體部門의 技術을 축적함으로써 未來에 對備하였으며, 輸出도 25億弗을 達成하여 우리나라 輸出增大에 先驅의 役割을 担当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수만 없는 것이 電子立國의 雄志를 품고 있는 國家的 現實이며 세계로 발돋움하려는 電子業界의 現實입니다. 따라서, 우리 電子業界는 韓國經濟의 先導者라는 긍지와 함께 民族의 活路를 開拓하겠다는 使命意識을 갖고 다음과 같은 姿勢로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企業에만 局限된 問題가 아니며, 全 電子工業에 종사하는 企業 모두의 共同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經營體質을 內實化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의 침체된 經濟와 今年의 불투명한 景氣는 우리에게 內實을 다지는 機會를 주기에 充分한 것입니다. 會社의 몸을 가볍게 하고 實質的인 收益性을 最優先으로 삼아 經營의 質的 改善을 꾀하므로써 世界로의 도약을 위

한 基盤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끊임없는 技術革新과 品質向上을 위해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電子産業의 生命은 끊임없는 技術革新입니다. 時時刻刻으로 쏟아져 나오는 질 좋고 값싼 新製品의 洪水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先進技術을 알지르기 위해서는, 技術과 品質에 대한 피나는 勞力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消費者들이 믿고 쓸 수 있는 製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部品 하나 하나에 우리의 精誠어린 손길이 닿을 때 우리의 努力은 빛을 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販賣力을 強化해야 되겠습니다. 보다 치열해진 國內外 市場은 그야말로 戰爭을 방불케하는 격전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國際市場에서의 경쟁은 品質, 價格, 애프터서비스 그리고 國家의 이미지가 포함된 全面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電子製品의 輸出擴大는 輸出立國을 指向하는 國家的 命題이며, 이 命題의 達成에 一翼을 担当하기 위해 온갖 勞力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比較的 소홀히 했던 애프터서비스를 強化하며, 韓國製品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세일즈멘트를 파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姿勢로 輸出增大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國內의으로, 消費者가 손쉽게 값싸게 製品을 購入할 수 있는 流通體制의 確立—예컨데, 信用販賣會社 等の 早期定着—은 信用社會의 章을 여는 획기적인 流通革命으로서, 販賣力을 強化하려는 우리의 意志의 所産이 될 것입니다.

以上的 우리의 나아갈 方向은 물론 企業 內部的 努力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電子業界의 共同의 關心과 努力, 그리고 보다 積極的인 政府次元에서의 支援이 있게 될 때 우리

의 노력은 보다 빠르게 結實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支援의 方案으로서 우선, 半導體 등 先端技術開發部門에 대한 支援을 들 수 있겠습니다. 技術開發은 電子産業에 있어서는 生命과도 같은 것이며, 적극적인 開發意志를 살릴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資金의 支援幅을 늘리고 政府次元에서의 技術導入을 積極推進하는 것이 이에 該當되겠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企業의 위험부담을 最小化할 수 있도록 보다 低利의 資金을 적극 支援해 주므로써 企業이 安心하고 技術開發과 導入에 全力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流通体制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될 信用販賣會社의 設立에 對한 支援을 들 수 있겠습니다. 信用販賣會社는 消費者들에게 보다 손쉽게 金融을 서비스하고, 이에 따른 內需의 增大를 目的으로 합니다. 流通革命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信用販賣會社에 對해 거는 業界의 期待는 實로 큰 것이지만, 이의 設立은 그리 간단한 것 만은 아닙니다. 원활한 運營을 위해서는 막대한 資金이 所要되는 바 이는 現在의 業界 및 企業의 資金力으로는 도저히 不可能하며, 따라서 政府의 積極적인 支援이 要請되고 있습니다. 家電製品은 流通特性上 販賣, アフ터서비스, 신용 판매가 三位一體가 되어 機動性있게 運營되어야 하

므로 메이커別로 別途의 會社가 設立되어야 할 것이며, 政府에서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政府의 資金支援과 會社設立의 自律性이 確保될 때 우리가 目的으로 하는 信販會社는 그 機能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電子業界의 成長과 發展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相應하는 價格運用의 自律性도 부여되어야 마땅 할 것입니다.

電子工業立國을 실현시키려는 우리의 意志와 努力에 대한 자오는 그 어느 때 보다도 確固합니다. 韓國經濟의 再建과 將來의 希望이 電子工業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을때, 過去의 平탄한 成長과 外部的인 힘에 의한 成長에만 電子工業의 運命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基盤은 美國, 日本 등의 그것에 比하여 너무나도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어려운 經濟与件과 技術의 落後性을 뛰어넘어 국제무대에서 先進企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政府와 企業이 電子工業의 나아갈 方向을 뚜렷이 定立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겠으며, 그 위에 企業 自体의 努力과 政府의 行政적인 支援이 調和를 이룰 때, 우리의 電子工業은 다시한번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을 確信합니다.

경제안정은 나라안정 電子産業에 달려 있다.